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개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당구 배를 불태우다

산동반도를 막 돌아서자 멀리 바위산이 보였다. 산봉우리에 바위들이 솟아 있는 산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바위들이 붉게 빛났다. 마치 바위에 노을이 얹힌 듯했다. 포구 앞에는 작은 섬이 하나 보였다. 김시방의 배는 포구로 들어가지 않고 작은 섬 옆을 스쳤다. 일조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장보고와 정년은 이물과 고물에서 각각 경계를 섰다. 장보고는 점점 멀어지는 붉은 바위산과 작은 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시방이 한 사내를 데리고 와서 소개했다.

“등주에서 탄 행수 노잡이데이. 새로 온 노잡이들을 펄쩍 훈련시키고 이제야 소개시키는기라.”

“잘 부탁해요.”

“지가 험 말이구먼유. 이쪽부텀 당구덜이 많으니께 잘 막아주셔유.”

말투로 보아 그는 충청도 바닷가에서 등주 신라방으로 건너온 사내가 분명했다. 김시방이 한 마디 더 보탰다.

“행수 노잡이 말이 맞데이. 당구덜이 어선으로 위장해 있다가 번개맨치로 접근하는기라.”

우두머리 노잡이가 선실로 내려가자 김시방이 웃으며 말했다.

“쪼매 전에 얼이 빠진 사람 같았데이. 어데를 본 기가?”

“아, 포구를 보고 있었지라우, 포구 뒤에 산도 보고 쪼깐헌 섬도 보았지 라우.”

“적산포에도 신라촌이 있다 아이가.”

“지가 본 곳이 적산포인게라우?”

“포구 뒷산 산봉우리 바위가 붉게 보인다고 적산포라고 헛기라. 포구 앞에는 쪼매년 섬이 있고.”

그제야 장보고는 자신이 왜 적산포구와 적산, 작은 섬을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는지를 깨달았다. 가리포 앞에는 장도가 있고, 뒷산의 몇 개의 산봉우리 중에 하나는 바위로 된 산이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는 마음 속으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적산포와 적산, 작은 섬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리포를 연상시켜주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솟구치게 했기 때문이었다.

“촌장님, 적산포가 참말로 가리포허고 비슷허그만요.”

“나는 미처 몰랐데이. 쪼매 닭긴 했다 아이가. 해가 비치는 동쪽도 같고마.”

“그라그만요. 가리포도 아침에 해를 몬자 보는 동쪽이지라우.”

“신라인덜은 우째 그란지 몰라도 당에 오믄 모다 해 뜨는 곳을 보고 산다카이.”

김시방이 사는 일조도 해가 가장 먼저 떠서 빛이 비치는 곳이라는 의미의 지명이었다. 사람들은 명주에만 천태산이 있는 줄 알지만 일조에도 같은 이름의 산이 있었다. 일조 천태산 정상에는 해 모양이 음각된 선사시대의 바위 의자가 있는데, 이는 일조에 살던 씨족들이 대대로 해를 숭배해 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촌장님도 그래서 일조에 사시는게라우?”

“서라벌 귀족덜도 아침해를 볼라꼬 토함산에 자주 올라간데이.”

“공께 서라벌이나 가리포나 해를 숭배허는 것은 모다 마찬가지로그만요.”

“그기 어테를 가도 변치 았는 신라인의 맴인기라.”

“촌장님 말씀 들고 본께 그러그만요. 탐진사람덜도 그래라우.”

그때였다. 적산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바다에서였다. 바닷물 빛깔이

김푸르게 바뀐 흑수바다에 들어섰을 무렵이었다. 고물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정년이 김시방에게 달려왔다.

“무신 일인가?”

“배 한 척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그만요!”

김시방과 장보고는 바로 고물 갑판으로 갔다. 과연 정년의 말대로 배 한 척이 김시방의 장삿배 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장보고는 고기를 잡는 어선 같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들었다. 김시방의 장삿배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수상쩍었다. 김시방이 말했다.

“쫓매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구 배 같데이.”

“그렇다든 촌장님 지에게 땀겨 주시지라우. 지가 당구 배를 막아볼께라우.”

“그기 에렵데이.”

“미산포 별장에게 배운대로 허믈 되겠지라우.”

정년도 한 마디 했다.

“미산포에 당구덜이 왔을 때 별장이 물리쳤그만요. 별장은 당구덜을 대비해서 훈련을 자꼬 시켰지라우.”

“알았네. 실수없이 장 공사가 선원덜을 지휘허게나.”

장보고는 즉시 선원들 중에 공사들만 불러 모았다. 정년은 장보고 옆에 참좌군관처럼 칼을 잡고 섰다. 노잡이와 키잡이, 돛잡이는 정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장보고가 미산포 별장이 훈련시켰던 대로 엄하게 말했다.

“내가 지시할 때까지는 절대로 활을 쏘지 마라. 알겠냐!”

“예, 공사님.”

공사들은 장보고와 정년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였다. 모두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옆구리에는 칼을 찼다. 반면에 키잡이와 돛잡이, 닻잡이는 칼만 찼다. 긴 창과 갈고리는 아직 배 갑판에 누어 놓고 있었다. 김시방이 장보고에게 말했다.

“당구덜이 맞데이. 어선이라든 어부덜이 갑판에 나와 있어야 할긴데 읍데이.”

“촌장님, 지 생각도 그래라우. 어선이라든 우리를 계속 쫓아올 리가 읍겼지라우.”

배 한 척이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김시방의 장삿배를 계속 쫓아왔다. 선장이 돛잡이에게 배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지시했지만 어선으로 위장한 당구 배의 추격도 만만찮았다.

이윽고 당구 배에 한두 사람이 보였다. 당구들의 우두머리인 듯 투구를 쓰고서 선두에 서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김시방은 선장에게 배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장보고가 김시방에게 말했다.

“이쯤에서 배를 멈추고 당구덜을 지달리믄 으짚께라우?”

“아니네. 병법에 때로는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것도 좋은 전술이라고 했데이. 저넘덜이 무서워서 도망치는기 아닌기라.”

“당구덜이 끝까정 쫓아오믄 으짚랍니까?”

“다른 때 같으믄 쪼매 쫓아오다가 돌아가빠리는데 오늘은 독헌 넘덜인 거 같데이.”

김시방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장삿배는 적산포를 지나 일조 바다에 들어서고 있었다. 일조 신라촌은 김시방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이었다. 신라촌 뒷산인 천태산에는 신라왕이 있었다. 그때 선실에 있었던 심지가 나와 공사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무신 일입니까?”

“스님, 위험한데 선실에 들어가 겨시지라우,”

장보고가 심지에게 말하자 김시방이 손으로 어선으로 위장한 배를 가리켰다.

“심지스님, 저거 해적인기랴요. 그렇게네 안전한 선실로 들어가 겨시소.”

장보고도 심지에게 한 마디 했다.

“선실에서 기도해주시믄 모다 무사할 거그만요.”

“알겠습니더.”

심지는 갑판에 놓인 창과 갈고리들을 보고는 다시 선실로 들어갔다. 장보고가 말했다.

“아직은 우리 배가 잘 피해가고 있지만 은제까정 이럴 수는 읍지라우. 노잡이 선원덜이 지치믄 우리가 불리허겄지라우.”

정년이 장보고의 말에 힘을 보탰다.

“선원덜이 지치기 전에 저널덜을 지달리다가 쳐야 험니다요. 선원덜이 지쳐블른 어처케 싸운당가요.”

“이쯤에서 결판을 내야겠그만요!”

장보고가 다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비장하게 말하자 김시방이 허락했다.

“좋네. 장 공사에게 전권을 주겠데이.”

“심지스님이 기도허신께 우리 선원덜이 이길 거그만요.”

장보고는 김시방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우두머리 돛잡이와 노잡이에게 말했다.

“돛을 내려부씨요.”

“시방부텨م 노를 젓지 마씨요.”

장보고가 그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중늬은이인데다 우두머리 행수급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보고의 지시를 깍듯이 받들었다.

“공사님 말씀대로 하겠슈.”

“공사님 지시대로 하겠십니다.”

돛을 내리고 노를 젓지 않자 김시방의 장삿배는 흑수바다에 멈추었다. 검은 파도가 장삿배의 옆구리를 칠 때마다 돛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당구 배가 돛쪽에 바람을 가득 안고 더 빠르게 다가왔다. 장보고가 말했다.

“내가 투구를 쓴 녀를 맞춰 자빠지게 허믄 그때 동상은 돛쪽에 불화살을 쏘부러잉.”

“예, 성님.”

긴장하고 있는 공사들에게도 말했다.

“화살을 애껴야 험께 당구덜이 화살을 쏴 때는 그냥 엇드려 있어야 씨. 맞대응허지 말고.”

“저넌덜이 몬자 불화살을 쏘믄 으쩐다요?”

정년의 말에 장보고가 말했다.

“우리는 돛을 내려부렸고, 갑판에 물을 찌그러부렸은께 불날 일은 읍제잉.”

선원들이 갑판에 바닷물을 붓기 시작하자, 장보고와 정년은 뱃머리로 올라갔다. 그때 당구 배에서 불화살이 하나 날아왔다. 장보고가 정년을 밀어젓히자 그 사이로 불화살이 날아와 갑판에 떨어졌다. 불화살은 바닷물에 젖은 갑판 위에서 맥없이 꺼졌다. 불화살을 신호로 당구 배에서 화살이 소나기 오듯 날아왔다. 화살이 한 차례 무더기로 날아온 뒤에야 장보고가 투구를 쓴 당구에게 화살 한 발을 쏘았다. 그러자 투구를 쓴 당구가 흑수바다로 굴러 떨어졌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소리쳤다.

“동상, 당구 돛에 불화살을 쏘부러!”

마침 당구 배의 돛을 겨냥하고 있던 정년이 불화살을 날렸다. 불화살은 곧장 당구 배의 돛에 불을 놓았다. 돛에 불이 붙자마자 당구들이 갑판 위에서 날뛰었다. 우두머리 당구가 장보고의 화살에 맞아 죽고 돛에 불이 붙어 타오르자 갈팡질팡했다. 장보고가 다시 소리쳤다.

“모다 화살을 쏘라!”

“예, 공사님!”

돛이 불길에 휩싸이자 갑판 위에서 이리저리 날뛰던 당구들이 일부는 흑수바다로 뛰어들었다. 또 화살을 맞은 몇 명은 비명을 지르며 갑판

위에 쓰러졌다. 장보고의 작전은 예전의 미산포 별장처럼 용의주도했다. 당구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흑수바다 파도에 떠밀려갔다. 심지는 아직도 선실에서 기도 중이었다. 김시방이 용단을 내렸다.

“뚝을 올리그레이.”

“수색할 때는 긴장해야 써. 숨어 있는 녀미 있을 줄 모른께.”

김시방의 장삿배가 당구 배에 접근하는 동안 선원 두 명이 갈고리를 던졌다. 갈고리가 걸리자 당구 배가 끌려왔다. 칼을 빼 정년이 먼저 훌쩍 뛰어 당구 배로 넘어갔다. 창을 든 궁사 두 명도 정년 뒤를 따랐다.

잠시 후, 정년이 장보고에게 당구 배로 넘어오라고 손짓했다. 갑판 위에 쓰러져 죽은 당구들만 있을 뿐 안전하다는 수신호였다. 김시방과 장보고는 당구 배로 갔다. 당구 배의 갑판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불에 탄 뚝은 시커멓게 타버린 채 앙상했다. 이윽고 선실을 수색하던 정년이 소리쳤다.

“성님, 선실 창고에 사람덜이 있그만요!”

“당구가 있을지 모른께 지달려!”

그러나 조심할 필요는 없었다. 창고 문틈으로 손발이 묶인 사람들만 보였다. 며칠 동안 굶은 듯 신음소리만 났어냈다. 그중에서 누군가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다.

“우덜은 신라인이어유. 당구덜헌티 붙잡혀 노비로 팔려가고 있슈.”

“걱정 말드라고잉. 우리는 신라인이여.”

정년이 한 마디 하고는 발로 창고 문을 찼다. 정년의 발차기에 창고 문이 박살났다. 과연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손발이 묶인 여섯 명의 신라인 사내들이 신음소리만 내뿜을 뿐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정년이 한 사람씩 새끼줄을 풀었다. 김시방이 장보고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덜을 우리 배에 옮기그래이. 물이라도 맥이몬 기운을 쪼매 차릴기다.”

궁사들이 창고 안에 든 사람들을 한 명씩 업었다. 김시방은 선원들에게 죽은 당구들을 수장시키고 빈 배를 불 지르라고 명했다. 당구 배는 선실에서 연기를 내뿜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우두머리 노잡이가 김시방에게 말했다.

“촌장님, 바다에 뛰어든 당구덜을 워찌지유?”

“구출헌 신라인덜을 일조 신라촌에 맏길라몬 시간이 읍데이.”

“알겠구먼유.”

장삿배에 구출한 신라인 여섯 명을 다 태우고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며칠을 굶은 여섯 명은 당장에 물으로 내려가 신라촌에서 기력부터 회복해야 했다. 당구들은 납치한 신라인들을 일부러 굶기는지도 몰랐다.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실비실해야만 배를 탈출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심지는 당구 배에서 구출한 신라인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었다. 신라인 모두 절에 다녔던 불자인지 심지 앞에서 합장하고 있었다.

“인자 안심해도 됩니데이. 이 배는 신라촌 촌장님 배입니더. 여러분은 신라촌으로 갈깁니더. 거기는 신라인이 사는 마실입니데이. 거기에는 신라소도 있꼬 나 같은 스님이 머무는 신라원도 있십니데이.”

“스님, 이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더. 우리는 메칠째 어테로 가는지도 모르고 컴컴헌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더. 인자 광명세상에 나온 거 같습니데이.”

정년이 말했다.

“탐진에서 온 사람 있는게라?”

“한 사람만 경상도고 모다 충청도 사람이유.”

김시방의 장삿배는 일조 앞바다를 지나치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 포구로 들어갔다. 장삿배에서 내린 김시방은 구출한 여섯 명을 데리고 신라촌으로 갔다. 물에서도 장보고와 정년은 김시방을 호위했다. 신라촌은 포구에서 깊숙한 천태산 산기슭에 있었다. 그런데 바닷물은 신라촌 앞까지 들락 거렸다. 바닷물이 빠지면 신라촌 앞은 드넓은 개펄이었다. 그러고 보니 신라촌 사람들은 개펄에서는 소금을 굽고, 들판에서는 농사를 짓고 산자락에서는 불을 피워 솥을 만들고 살았다. <계속>